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5+5척씩 LOI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Capital Maritime & Trading Corp과 13,000TEU급 컨테이너선 5+5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LOI(Letter Of Intent)에는 LNG선 추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이마바리, 처음으로 울트라라지 '컨'선 건조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처음으로 23,000TEU급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게 된다고 보도됨. 이마바리조선의 해운 부문 자회사인 Shoen Kisen이 Ocean Network Express(ONE)에 용선을 주는 조건으로 23,000TEU급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 6척을 이마바리조선에 발주하게 되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연말 '컨'선 발주 러시

한-중-일 조선업체들이 LOI를 체결했거나 수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80척 이상 된다고 보도됨. 23,000TEU급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은 30여척에 달한다고 알려짐. 중국, 대만, 유럽 선주들이 조선사에 보낸 인콰이어리 중 50척 이상은 네오 파나막스선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함.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계약서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Athenian Sea Carriers jumps on VLCC newbuilding bandwagon

그리스의 선주 Athenian Sea Carriers가 VLCC발주러시에 합류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2척의 VLCC 건조에 대한 LOI(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전통형(conventional-fuelled) 선박이며 2022년 인도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US-China crude trade to support large tankers despite bearish outlook over shale output

VLCC와 Suezmax 선주들이 오는 2021년부터 미-중 간 장거리 운송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비록 저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미국 Shale업체들의 생산량 전망치는 낮은 상태로 홍보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을 늘릴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